

이상화 선수의 올림픽 2연패를 조계종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랜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한 성과였기에 감동은 더욱 깊으며, 지난 밤 많은 불자와 국민은 함께 시상대에 오르는 행복을 가졌습니다.

순위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국민의 즐거움과 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마음까지 건강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차분함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선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2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